

아직도 “비엔날레는 어렵다” 선입견 눈높이 교육 강화로 시민과 소통해야



‘2016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4전시실에서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6일 폐막한 올해 11회 비엔날레는 약 40만명이 즐겼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66일 대장정 광주비엔날레 폐막

하 과제

지역 신진작가들 세계 미술계 진출 지원할 시스템 구축 시급 비오면 물 새는 전시장 ... 리모델링·신축 통해 근본적 해결을

6일 막을 내린 ‘2016 광주비엔날레’는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전시 외적인 부문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낳았다. 지난 제10회에서 ‘세월호’ 풍파를 겪은 후 올해 새로운 모습을 다졌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전시를 총괄했던 마리아 린드 총감독은 한국을 떠났다. 공은 이제 광주비엔날레재단으로 넘어왔다. 제11회를 뒤로하고 12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짚어본다.

◇생색만 낸 포트폴리오 공모=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 큐레이터와 작가가 참여하지만 정작 세계적인 지역 신진작가들은 배출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시선이 있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만 40세 이하 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포트폴리오 공모’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작가에게 본전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리뷰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꾼 올해는 최종 선정 2명은 본전시 참여, 1차 선정 10명은 무각사 문화관에서 리뷰전을 열었다.

예년 행사와는 달리 최종 선정작가 작품은 전시관 내부가 아닌 출구쪽 로비에 설치해 모르고 지나치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더욱이 가로·세로 1m 이내 작품 1점만 걸려 눈에 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리뷰전’에 참여한 작가들에게는 넓은 공간, 전문가 비평 등이 제공돼 오히려 본전시 참여보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시 구성이 감독의 권한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

공간·작품 수 확보 등 최종 선정에 합당한 대우가 부족했다. 또한 전시가 끝나더라도 세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행사 열리지 않는 홀수해에도 시민 소통 노력야=2014년까지 비엔날레재단은 짝수해에는 비엔날레, 홀수해에는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했다. 지난해는 디자인비엔날레 주관사가 광주디자인센터로 넘어가며 행사를 치르지 않고 보냈다. 재단은 시민대상현대미술 체험 교육, 초·중·고 미술교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비 행사년도에 이용해 시민들과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비엔날레는 어렵다’는 선입견이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현대미술 트렌드와 작품을 소개하는 ‘눈높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산비엔날레, 미디어시티인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관람객들을 광주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 홀수해에도 꾸준히 주목될만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광주에 대한 친근감을 키우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 난항=올해 비엔날레 예산은 100억원(국비31·시비29·자부담40억)으로 지난 행사에 비해 약 13억원 늘어났다. 여느 기관과 달리 자부담이 많은 편이지만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일몰제(국비10억원 이상, 개최횟수 7회가 넘는 국제행사 지원을 축소하는 제

도 대상에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광주비엔날레를 포함시켰다.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국비 30억이 9억으로 축소돼 2018년 행사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285억원에 머물고 있는 기금(연 이자수익 10억원)과 줄어들고 있는 유료티켓 판매(판매수익 10억원)를 고려했을 때 결국 시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통보받은 비엔날레재단측은 인력·운영 예산 축소, 후원 유지, 자체 수익사업 강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행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단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노후화된 전시장·비만 오면 전전궁금=광주비엔날레전시관은 1995년 2월 착공을 시작해 7개월 만에 급조된 건물이다. 올해로 만들어진지 21년이 되며 곳곳에서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월초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2·3·4관이 물이 새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특히 올해 전시는 파티션이 없는 구성으로 열려 남은 전시관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당성 평가에서 기재부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가 세계적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문화도시를 표명하는 만큼 리모델링, 신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밖에 올해 비엔날레는 이사장 없이 치러진 첫 행사다. 지난해 12월 전운철 전 이사장이 사퇴하며 박양우 대표이사가 임시로 겸직했다.

비엔날레재단측은 “이사장은 규정상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통합하든, 이사장을 다시 선임하든 어떻게든 조직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홍희기자 kimyh@

‘하얀 거짓말’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극단 까치놀 연극 ‘동화의 관’

11~13일 금남로 공연 1번지

22일부터 일본 삿포로에서 공연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하얀 거짓말’로도 불리는 ‘선인의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

극단 까치놀(대표 이영민)이 무대에 올리는 연극 ‘동화의 관’은 ‘거짓말’을 중심으로 인간의 다양한 내면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요코우치 겐스케의 원작 소설을 연극으로 옮긴 ‘동화의 관’은 광주연극협회의 제10회 광주-홋카이도 교류 공연 작품으로 오는 22~23일 이틀간 삿포로 오오기야 기념 스튜디오 씨어터 ZOO에서 일본 관객들 만난다.

일본 공연 전 광주에서는 11일(오후 7시 30분), 12일(오후 4시·7시), 13일(오후 4시)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소극장 공연 1번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작품 속 등장인물은 모두 넷.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젠지, 자신의 출신과 신분을 감추고 자신이 벌인 일들을 은폐하는 여자, 마을에 담긴 진실을 정직이라는 명목하게 철저히 숨겨 온 가로쿠와 기요가 주인공이다. 각각의 진실을 지닌 네 인물이 서로 자신의 거짓이 들들 나느냐 마느냐를 두고 팽팽한 심리전을 펼치며 긴장감을 높인다.

김문광 작가가 각색하고 김영록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안운국, 김양희, 심성일, 이현숙, 선정희씨가 출연한다.



동화의 관

작품을 제작한 이영민 까치놀 대표는 “경쟁 사회 속 자신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가면을 착용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진실과 거짓의 묘한 경계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 5000원, 학생·연극인 1만 원.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37기 정기강좌 내달 4일까지 카페 ‘노블’

깊어가는 가을 인문학을 매개로 자유정신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를 고찰해보는 강좌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문학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37기 정기강좌를 개설했다. 내달 4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강좌와 SEMI강좌로 나눠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인문학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이다. 월요일에는 인문학 넓히가기 시간으로 이진 교수가 ‘동양사상으로 사유하기2 : 신영복의 ‘강의’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은 인문학 체험하기 시간으로 안정선 두루예술심리상담센터장이 ‘심리학으로 해석하는 단계별 예술심리치료2’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요일에는 ‘몸의 철학, 메를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을 주제로 인문학 이론스터디가 열린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규범화되지 않은 실천적 페미니즘1 : ‘나쁜 페미니스트’와 ‘J.S.Bach(바흐) 시리즈2’를 주제로 토크를 한다. 토요일(오후 2시)과 일요일(오전 9시)에 진행되는 SEMI강좌는 ‘명하여 다시 한 번-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낙엽 축제 in 남도’ 등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토·일 강좌는 변동 있음, ‘인문여행’은 참가비 별도)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7년도 광주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 신입단원 모집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2017년도 광주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바이올린(9명)·비올라(3명)·첼로(6명)·콘트라베이스(4명)·클라리넷(5명)·트럼펫(7명) 등 12파트로 59명을 선발한다.

광주지역 초교 3학년생부터 고교 2학년생까

지 지원할 수 있고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합격 여부는 오는 26일 공개 오디션을 거쳐 결정된다. 문의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과(062-380-8856).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찜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찜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